

“科学과 技術은 美행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美國國民들에게 직장을 마련해주고, 國家安保를 공고히하고, 國際的 競爭力을 증진시키며 건강과 생활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가결한 것입니다. 理論科学과 應用科学의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은 계속적인 인류 발전을 위해 그리고 世界가 앞으로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報告書는 우리의 科学的 企圖을 지원함에 있어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報告書는 또한 民間分野에서 가장 훌륭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비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서로 함께 科学과 技術을 우리 國民의 모든 필요성과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報告書의 국제간의 科学 및 技術協力에 관한 政策面을 다룬 章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이란, 연방정부가 후원하는 協力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美國의 科学者와 工者들은 수 많은 국제적 사업체에서 협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을 채용하고 있는 大学이나 産業체를 통한 협력 제공의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경우 연방정부는 기껏해야 그러한 협력의 促進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美행정부의 科学· 技術政策의 한 중요한 국면은 그러한 협력을 고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지나면 이 對議會 報告書는 韓國을 포함하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정한 國家들간의 科学· 技術협력계획에 美行政府의 광범한 政策指針들이 적용되는 방식은, 경우마다 그 國家와 美國이 서로 함께 나누어 갖고 있는 특정한 관심에 따라 또한 그 國家의 科学· 技術政策, 資源 및 能力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工業化된 民主國家들은, 예를 들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 향상된 환경의 質, 그리고 증진된 國家安保등에 관한 관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 美行政府의 政策 강조점은, 모든 협력당사국들에 대한 投資의 報答을 極大化시키도록 研究 開發資源을 함께 나누어 갖는데에 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이스라엘 및 韓國과 같은 “中産層” 國家들은 科学과 技術의 어떤 局面들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에 인상적인 전진을 이룩했습니다. 西유럽, 캐나다 및 日本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美國의 科学者와 科学团体들 그리고 그들과 일하는 이들 “中産層” 국가들의 科学者와 科学团体들에 의한 협력이 그 結實의 度는 더해가리라는 것이 予見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對議會 報告書로부터 引用해드린, 未來의 협력을 위한 그같은 적극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政策에 힘입어 다만 여러분에게 감사 드린다는 것과 여러분 모두의 科学的 노력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웃아픔 내가알면 나의아픔 이웃안다.